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서 7:1-1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일이 '제사'라는 일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약속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답이 약속의 피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재료가 필요 없으십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힘을 내서 헌신하려고 하면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 훈련을 통해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계속 영적 힘이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언약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6일 동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중에 만약 평생의 말씀이 들어오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해지고, 하나님이 여기라고 지정해주는 것이 평생의 말씀입니다. 목표 지점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이 될 것이고, 목표 지점은 땅끝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생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 하나뿐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평생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받은 것뿐인데, 그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어난 일에 정복하고, 역전하게 됩니다.

모세, 요셉을 보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개인 이름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평생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생을 걸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평생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또 평생의 말씀에 연결됩니다. 내 평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흐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정지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는 평생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쯤 갈 것인지 그림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사명인 천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감동했을까요? 우리도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주일을 놓치면 6일을 놓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답이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관계가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의 세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언약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면,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환경, 조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누구에게 갈까, 어디로 가야 할까 방황하게 됩니다. 언약으로 들어오면 그 질문이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리고, 보이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고백 된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에 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평강이요,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엔 그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5-6절에 레위인도 아닌 멜기세덱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하기 위해 계속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이니, 그를 믿으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을 자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을 사람이니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자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려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에게 드리는 십일조와 산 자에게 드리는 십일조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십일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레위인도 그 중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십일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지파 소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700년 앞서 산 인물입니다. 그 조상이 드린 십일조를 너희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로 인해 세상에서 사탄이 일으킨 모든 불의가 깨어집니다. 그는 평강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왕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불안하게 해도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 불안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평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세상에 족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족보가 반드시 있고, 과정과 여정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자들이 늘 받던 십일조를 산다는 증거를 받은 자신이 받으므로 같은 십일조라도 의미를 달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은 분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집니다. 이 원리 때문에 레위인도 십일조에 십일조를 드리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멜기세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의미와 제도를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되는 분이란 것입니다. 더 읽어 내려가면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의 직분도 바뀌어 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율법을 규정한 제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안에 규정된 제사가 사람을 저주에서 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고, 제사 직분이 바뀌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직분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전보다 위대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된 목표가 약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서 레위 사람이 아니라 산다는 증거를 가진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당연히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성전은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피 제사가 결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죽을 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제사장 직분과 산다는 증거 가진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죽을 자와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자의 신분과 직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받던 구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피 제사를 드리던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신분과 직분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 마지막 그날에는 인간은 상상도 못할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30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신 의의 왕을 만났습니다.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대 평강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평강이 들어온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버렸습니다.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셉처럼 해, 달, 열한 별이 절하는 삶을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평생에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황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그가 중심이 되어 돌아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이 언약으로 들어가 그의 소원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원네스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언약을 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번 주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